

올해 2회를 맞이하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32일간 금산군 신대리 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에서 「생명의 뿌리, 인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인삼을 통한 금산지역의 경제적 도약과 건강 생명도시로서 금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엑스포이다. 자연의 과학이 만든 생명밸런스라는 부제 아래 인삼의 생명산업화의 가능성을 보게 될 행사 속으로 미리 떠나보자.

미리 가본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김종기 |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홍보팀장

자연의 과학이 만든 생명밸런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탄생은 금산이 고려인삼의 종주지라는 것과 전국 인삼 유통량의 80%가 거래되는 인삼 유통의 중심지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2006년 엑스포는 종주지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인삼을 통해 금산을 인삼도시로 브랜드화했다. 2천2백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고, 3천억 원의 직접매출을 발생시켰으며, 19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6년의 성과를 이점으로 2011년 엑스포에서는 인삼을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과학적인 효능과 품질의 우수성으로 인삼의 생명산업화로의 메시지 확장을 통해 아시아 대표 건강 생명도시라는 금산의 새로운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려 인삼의 우수성

인삼은 먼 옛날부터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도 여러 효능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신비하고도 영험한 약초이다. 고려인삼은 인삼 중에서도 1,500년 전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약용식물이다.

또한 인삼에는 30여종 이상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 간 기능 회복과 항암효과, 그리고 항스트레스, 당뇨병, 노화방지, 정력증진과 혈압조절 기능이 뛰어나 생명 연장의 지혜와 생명 소통의 철학을 담고 있는 인류 최고의 영약이다.

금산, 고려인삼의 종주지



인삼은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한다. 생명을 품어주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사람의 정성이 함께 해야 비로소 인삼이 자라나는 이치라고나 할까.

금산은 맑은 공기, 맑은 물, 아름다운 산과 함께 청명 온화한 기후, 뚜렷한 사계절, 주야간의 온도차, 그리고 토양 등 고려인삼의 생육에 최적의 장소이며,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의 사포닌 함량, 약리적 효능,

그리고 조직의 치밀도 등이 우수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충청남도 금산은 3대 약령시장의 한곳으로 유서 깊은 향토문화의 고장이다. 또한, 고려인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기반이 갖추어진 국내 최대의 집산지로 고려인삼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금산과 인삼을 상징화하는 회장 조성

행사를 약 5개월 앞둔 엑스포장은 준비가 한창이다. 금산의 건강 생명도시 이미지를 상징화하는 두 축-생명산업화의 축과 과학적인 자연의 축-을 중심으로 기능과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과학적인 공간이 설계된다. 또한 엑스포장 내에는 인삼의 재배요건인 빛, 물, 바람 그리고 땅을 형상화한 공간연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생명에너지가 살아 숨 쉬는 엑스포

엑스포장은 크게 '환영의 장', '생명 에너지의 장', '산업 교류의 장', '체험의 장', '소통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관람객의 엑스포장 방문을 환영하는 '환영의 장'에는 입구게이트 및 중앙광장 등의 입장시설, 운영시설과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생명 에너지의 장'에서는 미래의 생물에너지가 되는 인삼을 보여주며, 거대한 인삼밭을 형상화한 상징 모뉴먼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고려인삼관은 인삼의 역사에서부터 재배, 효능, 활용에 이르기까지 고려인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돕는 공간으로, 엑스포 주제영상관은 금

산 최초 Full HD 디지털 4D입체영상관으로, 4D효과와 7.1채널 입체음향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신비한 인삼'에 대한 스토리 전개의 극적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또한 이곳은 행사종료 이후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상설영상관으로 활용될 것이다.

엑스포의 주제관인 생물에너지관에서는 인삼의 생명산업화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 스토리텔링으로 세계인의 생활 속 인삼체험기를 인삼 테라피, 인삼 에스테틱, 인삼 푸드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건강미소관(인삼생활관)이 조성된다.

'산업 교류의 장'의 생명산업교류관은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인삼이 산업에너지가 되는 공간으로, 국내외 인삼 관련 기업이 대거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관람에 지친 관람객의 휴식을 돕는 야외생태정원과도 연계된다.

'체험의 장'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100% 체험을 통해 인삼을 이해하는 장으로, 인체에 미치는 인삼의 효능을 5단계 미션형 놀이로 체험하는 인체탐험관, 가장 오랜 약용 역사를 지닌 인삼을 한방으로 체험하는 금산명의원, 매일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주 무대로 조성된다.

마지막 '소통의 장'에서는 오감(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으로 인삼을 체험하는 오감체험장, 즐거움과 휴식이 있는 인삼미로정원과 야외분재전시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서는 세계 저명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려인삼의 효능 및 인삼 산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국제인삼심포지움과 각종 국제인삼학술회의, 그리고 상담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국제 인삼 교역 상담회도 함께 개최된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와 문화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져, 매일 인삼의 모든 것을 만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놓치면 후회하는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킬러 콘텐츠

하나, 금산과 인삼을 상징화하는 상징 모뉴먼트

인삼밭의 해가림막의 과학을 재현한 인삼밭 모뉴먼트는 엑스포장 전체 공간에 설치되어 금산의 건강 생명도시 이미지를 상징화하고 동시에 엑스포장 공간 자체가 하나의 야외전시물로 기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1000년 고려인삼 연출(생명에너지관)

부산 원광사에서 발견된 1000년 전의 고려인삼 뿌리를 통해, 인삼이 지닌 역사와 문화를 상징적으로 연출한다.

셋, 2020 미래 인삼 팩토리(생명에너지관)

1000년 인삼의 생명에너지를 추출하는 2020년의 미래 인삼 공장을 연출하여 과학화, 산업화된 상상 속 미래 인삼의 모습을 소개한다.

넷, 초대형 인삼 씨앗(건강미소관)

관람객들은 지름 5m의 초대형 인삼 씨앗에서 2011개의 인삼 뿌리가 만들어 낸 인삼 훈증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다섯, 대형 인체모형 체험관(인체탐험관)

미래 인삼소비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의 인체장기를 대형 모형화한 초대형 체험공간으로, 입-위-대장-심장-항문으로 이어지는 5단계 미션형 놀이를 통해 인삼이 우리 몸에 미치는 효능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여섯, 건강 생명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행사장

벚단, 흙, 돌 등 자연 속의 자재를 친환경 공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전시관을 조성한다.

건강과 생명, 산업과 과학, 미래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32일간의 인삼 산업화 및 세계화의 장이 될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금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웃음과 건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